

## 인사말

가야의 숨결이 살아 있는 김해에서 '세종이 사랑한 도자기, 분청'이라는 주제로 제27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를 개최합니다.

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곳곳이 활동하고 있는 김해 도예가들의 도자기 작품을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으며, 다양한 특별행사들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.

(사)김해도예협회 이사장 **안홍관**

## 분청사기란?

'분청사기(粉靑沙器)'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다인(茶人)들이 의미가 불확실한 '미시마테(三島手)'라고 부른 것에 대해 고유섭선생이 백토를 발라 장식하는 분장수법(粉粧手法)이 그 특색임을 들어 '분장회청사기(粉粧灰靑砂器)'라고 명명한데서 비롯되었다.

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분장회청사기를 줄여서 '분청사기(粉靑沙器)'라고 부르게 되었다.

분청사기는 14세기 삼강청자의 뒤를 이어 시작되었으며, 15세기 초 조선왕조의 기반이 닦여진 것과 때를 같이하여 퇴락했던 삼강청자가 일변하여 서서히 탈바꿈한 기명이다

이후 16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 가장 순박하고 민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.

## 행사장안내

- 1 종합안내소
- 2 특설무대
- 3 도자기 전시·판매장(A동)
- 4 도자기 전시·판매장(B동)
- 5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대한민국의분청도자대전 수상작 전시
- 6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김해도자테이블웨어전
- 7 도자체험마당
- 8 푸드트럭구역
- 9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

